



2025년 1월 19일

연중 제2주일

NO.2172

하늘 마음



제라르 다비드의 <캐나의 혼인잔치>



입당송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62,1-5

화답송

-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이.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주님께 드러라, 못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러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을. ◎

-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이,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

제2독서 1코린 12,4-11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복음 요한 2,1-11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춤

그리스도교의 가장 대표적인 고전<존주성범>은
하느님 곁에 항상 머무르며 그 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느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 아래 말씀에 귀기울여 보세요.
어느새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1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없다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도는 길을 익히며 연구하는
교만한 학자보다는 하느님을 섬기는 존백성이 분명히 더 낫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은 스스로를 낮추며 사람이 하는 칭찬을 즐기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
도 사랑이 없으면, 나의 행실을 보고 심판하실 하느님 대전에서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
겠습니까?

2



너무 지나치게 알려 하지 마십시오. 바로 거기서 수없
이 많은 분심거리가 생기고 수없이 많이 속게 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유식하게 보이려 하고 지
혜롭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영혼에는 아무런 유
익함을 주지 못하며, 때로는 해롭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제쳐 놓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정말로 미련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정작 영혼에 만족을 주는 말은
없습니다. 착한 행실이야말로 정신을 새롭게 하고, 깨끗한 양심이야말로 하느님에 대
한 신뢰심을 가져다줍니다.

3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알수록 더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만큼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기술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습득한 지식을 두려워 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많이 아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로마 11,20 참조) 차라
리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유익함을 알고 배우고자 한다면 남이 여러분을
몰라주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해야 합니다.

4

가장 훌륭하고 유익한 지식은 자신을 참되게 알고 자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좋고 훌륭한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곧 지혜며 완덕¹⁾입니다.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죄를 짓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여러분이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의 착한 처지에 얼마 동안이나 놓여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글은 《준주성범》(©윤을수 옮김, 가톨릭출판사, 1955, 2021)에서 발췌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생각해보기

1. 자신을 낮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 겸손하게 행동하기 위한 나의 실천사항을 생각해 보세요.
* 가족들과 함께 할 때 나는?

- * 친구들과 함께 할 때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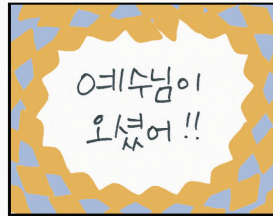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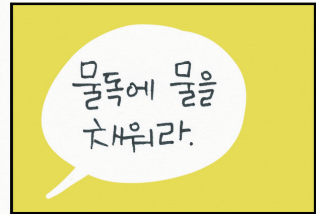
1) 완덕(完德): 그리스도를 그 완성과 목표로 바라보면서 이웃에게도 애덕을 실천하는 것



날으는 CYA

엄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반갑습니다, 희망의 희년! 기도할게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황병철 대건안드레아 신부

하늘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덧 1월의 절반이 지났는데, 새롭게 다짐한 마음을 잘 생각하며 힘을 내면 좋겠어요!



<희년의 문을 여시는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친구들은 살면서 특별히 기념하는 날들이 있나요? 생일이나 영명축일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와 처음 만났던 날이나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날들, 어떤 기념일일 수도 있겠지요. 특별한 날엔 평소보다도 더 기뻐하며 지내곤 하잖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도 특별히 기쁘고 복된 해로서 기념하고 더욱 기뻐하는 해가 있는데, 바로 올해 2025년이 그런 해랍니다.¹⁾ 이를 “**희년**(禧年, Jubilee)”이라고 해요.

희년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규정으로,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난 49년의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에 지낸 축제랍니다(레위 25,8-10). 희년은 노예들이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빚진 사람들은 모든 빚을 탕감 받고, 경작지는 쉬게 하는 등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자유와 해방의 해”였어요. 즉,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전통에 따라 희년 동안 **전대사**²⁾의 은총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하느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도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시간으로 보낸답니다.

1) 엄밀히 말해서는, 지난 2024년 12월 24일, 교황님께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을 활짝 열면서 희년이 시작되었고, 2026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에 성문을 닫으며 마무리된답니다. 성문을 통과한다는 건, ‘문’이며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 10,9).

2)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지만 잠벌(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벌이자 연옥에서의 고통으로 갚는 벌)은 여전히 남게 되는데, 전대사는 이러한 잠벌을 한꺼번에 면제해주는 은총을 말한다.

오늘날과 같은 정기적인 회년이 시작된 것은, 1300년 보니파시오 8세 교황부터였는데, 처음엔 100년 주기로, 이후 50년 주기, 그리고 1475년부터는 25년마다 회년을 지내면서 모든 세대가 최소 한 번은 회년의 기쁨과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어요. 회년에는 그때마다 주제가 있는데요, 이번 회년 주제는 **“희망의 순례자들 (Pilgrims of Hope)”**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순례하는 이들>

님은 우리 모두가 가끔 지치고 상처받는 일상을 보내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참된 희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나아가 두려움과 낙담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셨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희망을 품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희망은 단순히 낙관하고 긍정하는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회년 로고&사이트 QR>

회년 로고의 사람들이 출렁이는 파도에도 닻이 달린 십자가를 꼭 붙들고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두려운 죽음마저도 이기신 분께 희망을 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평생 사랑만 하며 사셨고, 그 사랑으로 불의와 폭력을 이기셨던 예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않을 거라 확신해요. 마치

그래서 이제 회년기간 동안,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시며 희망이 되시는 하느님과 시간, 즉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작년 2024년(기도의 해)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해 회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³⁾**들을 토대로 말이에요. 자, 우리 하늘마음 친구들! 희망으로 가득한 ‘기도’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지 않을까요?

3) 교황청 복음화부 세계복음화부서,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2025년 회년을 준비하며 기도의 해를 살아가기)

**하늘마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하고
카톡으로 편하게 하늘마음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메인 - 우측 상단 돋보기로 검색 - '하늘마음'검색 - 친구추가하기

왼쪽 QR코드 스캔하고 하늘마음 플러스친구 바로 추가하세요!

복음자리

2025년 1월 19일 | 연중 제2주일
(요한 2,1-11)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요한 2, 11)

새겨보기

오늘의 복음은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표징)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다룹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활 초기와 그분의 신적 능력,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 점차 성장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특별한 체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던 일들을 나누어 봅시다.**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

 **바로잡습니다**

지난 하늘마음 2025년 1월 12일자 표지 지면 내 전례 주간 표기가 '주님 공현 대축일'로 잘못게시되어 바로잡습니다. '주님 세례 축일'로 정정된 게시물은 포유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게시물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 후 제작시 착오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